

## 치 사

생명의 기운이 산천 곳곳에 움트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단의 상처가 그대로이고 차가운 철책으로 둘러싸인 이곳이지만, 우리의 염원이 더없이 크기에 봄기운은 어떠한 경계도 없이 더욱 생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징후는 한미연합사 장병여러분의 한결같은 헌신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며, 공동경비지역에 무량수전을 낙성하는 축하의 장엄이기도 합니다.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전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견의 마음으로 진력을 다해주신 서욱 군단장님과 이종화 사단장님, 그리고 임충빈 전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비역 장군님과 군불교 총신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의 원력과 희망을 실천하면서 오늘의 호국도량을 이루기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전국 교구본사와 많은 사찰의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대한 원력을 실천하신 군종교구 정우스님과 종도의 모범을 보여준 군승법사 여러분께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일련의 미사일 실험으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이로 인한 남북의 상황 또한 더할 수 없는 경색국면이기에,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긴 공동경비구역의 무량수전은 현시대에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량수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희생자를 봉안하여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있으며, 천도의 정성을 다하여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평화를 발원하는 소중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범종’은 그 울림으로써 우리 종단이 실천하고자 하는 ‘공

존과 상생'의 가치를 남으로 북으로 널리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호국정신과 평화의 원력을 실현하는 소중한 상징이자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군종교구를 비롯한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매진하는 국군장병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무운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족의 밝은 희망을 열어가는 뜻 깊은 회향을 함께 축원하며, 오늘의 공덕으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평화로운 삶이 환하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3월 31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